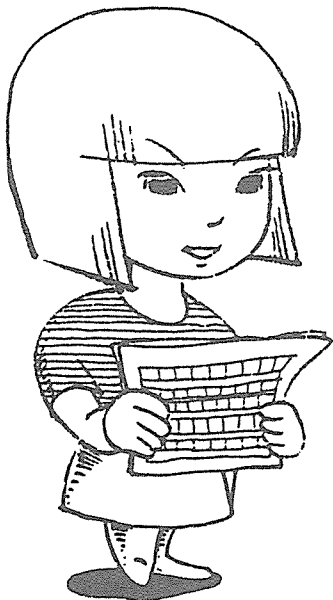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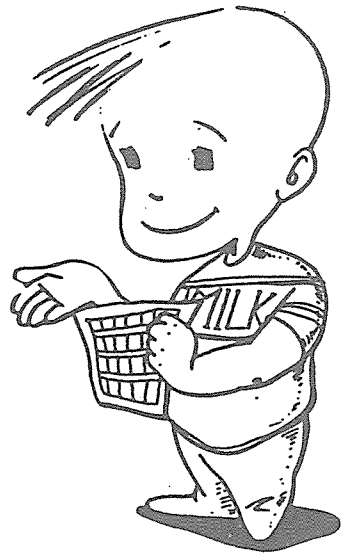


제10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열번째인 94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2천4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20명, 장려상 50명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본지는 동상이상 28편을 4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이번호에는 동상 6편을 실는다.

동상

나의 건강과 우유

장효진

(의정부 가능국민학교 1-10)

올해 봄의 일인 듯 하다.

현관문을 열고 아빠의 신문을 가지러 나가다가 난, 조그맣고 흰 상자곽 하나를 발견하고는 집어들었다.

“아침부터 누가 신문을 갖다놓지도 아니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하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예쁜 유리컵에 소가 풀밭에서 한가로이 노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도 두 개씩이나, 난 호들갑을 떨며 엄마를 불러댔다.

“엄마, 엄마 누가 우리집 현관앞에 컵을 놓고 갔어요.” 그러나 엄마는 주방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면서 웃으시지만 했다. 그러더니 내게 말씀하셨다.

“효진이가 하도 우유를 싫어하고 먹지 않아서 가정배달을 시켰단다. 먹지 않아도 냉장고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한 번쯤은 마시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 그러시면서 나의 어릴적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는 1987년 9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 22분에 지금은 없어진 의정부 신천병원에서 수술로 태어났단다.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엄마의 애를 끔

찍이도 씹이다 태어났단다.

그것은 결혼 후 3년까지도 아기가 없어서 집안 어른들께 말씀도 듣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순산하리라던 기대도 무너뜨린채 결국 수술로 태어나게 되었다.

8일째 병원에서 퇴원하던날 집에서 우유꼭지를 물리는데 빨지를 못하고 울기만 해서 엄마 젓꼭지를 물리니 조용하더라. 그것을 시초로 36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엄마젓 이외에는 그 어떤 이유식도 우유도 먹지않고 자랐단다.

36개월까지 젓만 먹었으니 영양가가 있을리가 없고 비실비실 면역성이 부족해서 감기란 감기는 달고 살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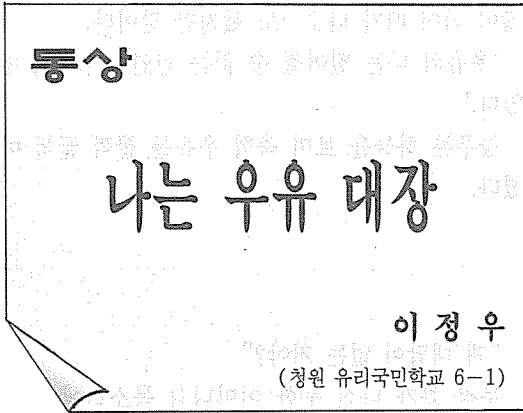
그리고 심장까지 좋지가 않아서 5살 때까지는 병원신세를 안지는 날이 드물었단다. 그러다 엄마가 잘 아시는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지어먹고 6살이 되는 해부터 살이 찌더니 지금은 너무 비만해서 반 친구들이 놀릴 정도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다간 정말 돼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서, 엄마 제안이 아이스크림, 사탕, 설탕, 초코렛 등등...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어릴적부터 싫어서 먹지 않았던 우유로 조금씩 바꾸어 가자고 하신다.

그런데 올해 가능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학교에 들어 갔는데, 우유급식이 있었다. 난 별로 먹고싶지가 않았는데 엄마는 누런봉투에 신청을 하였고, 친구들과 난 처음엔 맛도 모르면서 그냥 휩쓸려서 마셨다.

4월에 교실에서 우유를 마시는데 추운 교실이어서 인지 마신것이 체해서 무척 혼났다. 얼마간은 그냥 집으로 들고 왔었다. 우유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떼를 쓰면서— 그러나, 한 열흘쯤 지난 다음 다시 친구들과 어울려 물마시듯 우유를 마시니,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나도 모르게 친

구 것까지 넘볼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500ml짜리 우유 1통을 단숨에 들이마시는 우유 대장에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는 예전에 비해 건강해진 듯한 기분도 들고—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우유먹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이젠 다른 아이들보다 열심히 우유를 먹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우유대장이 되리라 다짐해 본다.



“반장,…”

빛돌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우리 선생님께서 둘레 시간이 끝나 인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

“차렷, 열중섯, 차렷, 경렷.”

“고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데 나는 후다닥 문을 열고 우유를 가지러 갔다.

“이정우 이리와요.”

잠시뒤, 선생님의 무서운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건 말건 무한 질주로 우유 배급소에 갔다.

6년 동안을 이렇게 우유주머니를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가지러 가고 가져다 놓고 그랬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머니들은 둘째 시간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우유 바구니에 우유를 넣고 나를 기다리셨다.

오늘도 아주머니께서는 방긋 웃으시며 “또, 너냐? 아무튼 못 말리겠다. 옛다, 어서 가져 가거라. 시원할 때 먹어야 우유는 제맛이 나는 거야.”

라고 말씀 하셨다.

“아, 아주머니도. 저는 시원한거든 따뜻한거든 우유는 다 좋아요. 상한 것만 빼고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축협 우유가 29개 담긴 바구니를 힘들지도 않는다는 듯이 거뜰히 들고 교실로 뛰지 않고 좌측 통행을 해서 갔다.

뒷문을 사용해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이정우, 우유가 선생님보다 더 좋나요?”

라며 선생님께서 벼락같은 질문을 내리셨다.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몰라도 우유가 더 좋습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털어 놓았다.

이곳 저곳에서 ‘하 하 하’ 하는 웃음 소리가 튀어 나왔다.

교실은 잠쉬뒤 웃음 천국으로 변했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시던 선생님께서 “하루에 우유를 몇 개 먹나요? 또 우유를 그렇게 좋아 한다면 우유에 뽀뽀를 하세요.”

어느덧 교실은 진장감으로 찼는데 “전 세상의 먹는 것 중에서 우유가 제일 좋습니다. 일어나서 하나, 학교에 와서 하나, 잠잘 때 하나, 모두 3개를 먹고 우유에 뽀뽀를 하겠습니까.”

우유를 들고 뽀뽀를 했다.

“음 음 음 음, 내 사랑하는 우유야.”

이날 이후로 난 전교에서 우유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먹는 아이로 널리 알려졌다.

우리반은 나를 비롯해 대여섯 명이 우유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유먹는 시간엔 난 우유부자가 된다.

앞에선 희경이가 옆에선 선주가 뒤에선 소연이가 건너편에선 은오, 설희가 우유를 주기 때문이다.

개들은 우유를 몹시 싫어한다.

그런 덕택으로 난 좋은 혜택을 받지만 말이다.

‘사람들은 왜 우유를 싫어하지? 이렇게 맛있고 신선한 걸. 젖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난 우유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도 크고 몸도 크고 영양도 좋은 우유를 싫어하니 말이다. 난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 우유 먹기 시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한국대표로 나가 금메달을 따 우유 대장이 될텐데...’

내 생각대로 이런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년마다 열리는 우유먹기 대회에 30번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세계의 우유 대장 이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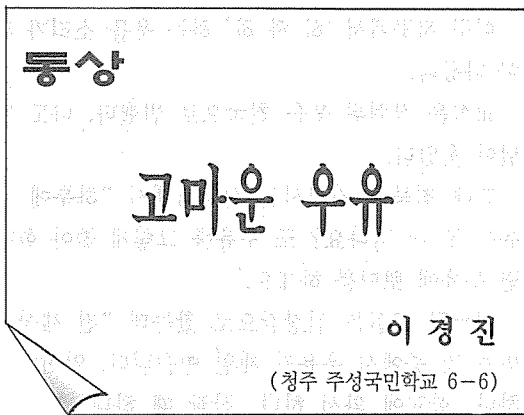
푸른 하늘에 이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누가 뭐래도 역시 나는 우유 대장이다. 우유를 많이 먹어 배가 나오기도 했지만 말이다.

‘우유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이야. 카, 맞았다.’

높푸른 하늘을 보며 축협 우유를 꿀꺽 꿀꺽 마셨다.



3학년때의 일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경진아 이게 다 뭐니?”

“.....”

오늘따라 묵직해진 내 가방을 살펴보신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다. 하나 하나 꺼내 놓은 우유는 고약한 냄새가 날 것 같이 썩어 있었다.

“왜 대답이 없는 거야?”

무척 화가 나신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냐니깐!”

“...우유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고 대답하였다.

간식으로 먹는 우유를 먹기 싫어 하였던 나는 우유 받을 때마다 책상 속으로 쓱 집어넣었다. 거의 일주일 가까이 가까워 졌을 때 우유들이 책상 속을 차지하여 도무지 책을 집어 넣을 수가 없었다.

‘혼나진 않을 꺼야’

라는 생각이 들어 책상 속에서 잠들어 있던 우유들을 꺼내어 가방 속에다가 집어 넣었다.

어머니께서 그 우유를 발견하신 것이다.

“잘못했어요. 엄마.”

나는 진심으로 뉘우쳤다.
“경진아, 왜 우유를 안 먹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셨다.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저한테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엄마 우유 대신 콜라를 먹으면 안될까요?”

어머니는 귀엽다는 듯이 웃으셨다. 그리고 말 씀하셨다.

“경진아, 배가 아픈 건 네가 너무 우유를 먹지 않아서 그런거야.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모자라서 그런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먹다 보면 나중에는 한 개를 다 먹어도 배가 아프지 않게 돼. 그리고 콜라보다는 우유가 훨씬 낫다고 생각 안드니?”

“훨씬 낫다고는 생각 되는데요. 그래도 콜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걸 넣어 먹으면 되잖아.”

어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 가서서 찬장에서 마일로통을 꺼내 오셨다.

“이거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럼. 콜라보다 훨씬 맛있어. 내일 학교에 조금 덜어 가지고 가렴.”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생각에 마일로통을 만 지작 만지작 거렸다.

“엄마가 우유에 대한 이야기 해줄까?”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성경책에 행복한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그 곳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야. 젖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지?”

“우유예요.”

나는 자신있게 말하였다.

“우유가 얼마나 영양가 있는 음식이면 성경책에 까지 나오겠니?”

“히히히 엄마 나도 우유에 대하여 아주 조금은 알것 같아요.”

“또 우유에는 칼슘이 많아서 키도 크게 해준단다.”

“키도 커요? 그럼 저 우유 많이 먹고 커서 멋진 왕자님께 시집갈꺼예요.”

어머니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셨다.

“우유는 여러 종류에 쓰인단다. 과자 만들때며 피자 만들때 등으로 말이야.”

“와! 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유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하여 멀게만 느껴졌던 우유가 친한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유만 먹고 나면 어머니께 쫓르르 달려 갔다.

“엄마, 저 키 컸나 키좀 재 주세요.”

그때마다 어머니께선 마다하지 않으시고 키를 재 주시고는 조금은 컸다고 칭찬을 해 주시고 왕자님 꿈을 잊지 않게 희망을 주셨다.

세월은 바람과 달리기 시합을 하듯 조금도 쉬지 않고 뛰어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우유를 꾸준히 먹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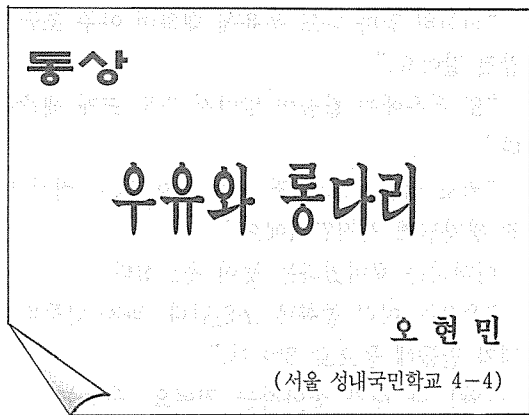
옛날보다 키도 부쩍 컸고 피부도 전보다 더 고와지고 튼튼한 내 몸은 모두 우유덕분이다. 역시 우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집 냉장고 안에는 언제나 우유가 한 식구 처럼 냉장고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털어 주어서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있다.

우리 가정의 한 식구처럼 자리 잡은 우유.

고마운 우유야. 널 사랑해!



오늘도 한 잔의 우유를 마시며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우유를 꺼내 마시고 화장실로 간다.

우리 엄마는 키가 157cm이신데 별명이 ‘짜리’다. 아빠가 붙여주신건데 엄마는 키도 작지만 다리도 짧다. 그러나 허리가 날씬하고 목이 긴데다가 얼굴도 예쁘고 옷을 멋지게 잘 입으셔서 사람들은 우리 엄마의 짧은 다리를 절대로 모른다. 아빠도 결혼하고서야 알았다고 하셨다.

엄마는 대학교 다닐 때 다리가 길어서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다고 하셨다. 그러나 작은 키에 다리까지 짧아서 항상 굽이 높은 구두만을 신고 다니셨다는 우리 엄마.

사십 세가 넘으신 지금도 우리 엄마는 여전히 외출하실 때에는 하이힐을 신고신다.

우리 엄마는 허벅지에 조그만 화상 흉터가 있다. 우유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셨다. 6살쯤 되었을 때의 일인데 옛날에는 가루 우유를 물에 타서 끓여서 먹었는데 우유를 빨리 먹고 싶어서 그 앞을 왔다갔다 하다가 그만 너무 불 옆으로 가까이 갔는지 치마에 불이 붙는 바람에 허벅지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한다.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무튼

그날 이후로 우유를 싫어하셔서 ‘짜리’가 되셨다는 우리 엄마.

엄마의 하얀 허벅지에 조금더 하얀 데인 흉터를 보면 우유가 묻은 것 같아 나는 가끔씩 만져보곤 한다.

이런 엄마때문에 나는 갈증이 날 때에도 물 대신 우유를 마셔야 했다. 자라나는 어린이는 우유를 많이 마셔야 키도 크고 다리가 길어진다고 강조하시는 엄마가 미워서 2학년 때 까지만 해도 “다리 짧아도 좋아요.”

하며 안 마시려고 떼를 썼는데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롱다리란 말이 유행도 되고 또 남자 애들이 “누구는 다리가 길어서 참 예쁘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나는 싫어도 엄마 말씀대로 우유를 꿀꺽꿀꺽 마셔댔다.

그리하여 4학년인 나는 지금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롱다리라고 친구들이 얘기한다. 며칠 전 노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학교에 갔다가 남자 애들한테 다리 뽐내려고 짧은 바지 입었다고 홍보는 친구와 다투기도 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여름 방학 때 아빠를 따라서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에서는 비닐 팩에 담아서 우유를 팔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우유를 그냥 마시면 설사를 하니까 끓여서 마셔야 한다고 했다. 번거롭지만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 엄마는 우유를 사다 끓이셨다. 그러나 싱겁고 맛도 비위에 맞지 않아 중국에 가 있는 15일 동안 나는 한 잔의 우유도 마시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방학 동안에 나는 키가 조금도 크지 않았다.

괜히 심술이 나면 “뜨겁게 데워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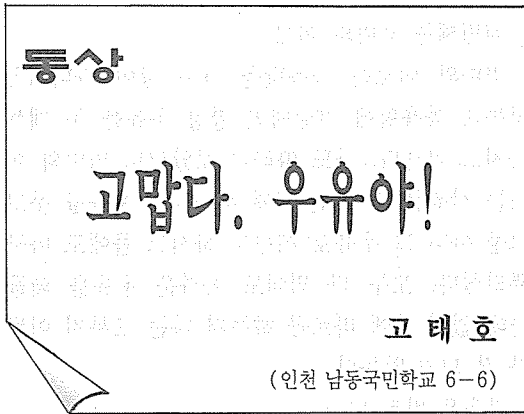
“찬 것이 더 좋겠어요.”

하며 엄마를 귀찮게 굴어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내가 다 마시면 좋아서 활짝 웃으시는 엄마.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예쁜 엄마.

공부 가르쳐 주실 때에는 무서운 선생님같이 싫기도 하는 엄마.

우유와 룡다리는 비례한다고 굳게 믿으시는 엄마 덕분에 나는 오늘도 긴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학교로 향한다.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 갈증을 풀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김없이 내가 찾는 우유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원한 우유 한 잔!

찬 우유의 고소한 맛이 온 몸을 적셔왔다. 정말 꿀 맛이였다.

전에도 잘 먹었던 우유가 더 좋아진 이유라면 그건 순전히 내 사촌 민영이 때문일 것이다.

민영이는 나와 동갑인 같은 6학년.

방학때마다 만나면 잘 놀기도 하지만 다투기도 잘 한다. 다투다가 말이 딸리면 민영이가 의례히 하는 말이 있다.

“태오야, 잘난체 하지마.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컴퓨터 잘 하지만 키는 내가 더 크다. 흥, 남자가 키는 작아 가지고, 내 키는 못 따라 올걸. 나보고 누나라고 해.”

그러면 내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라 더 악을 바

락바락 쓴다.

“야, 키만 크면 뭐하냐, 속에 든 것이 있어야지. 빈 깡통 차고 다니냐?”

그러고는 슬며시 내 방으로 가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말지만 사실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았다.

키가 조금만 더 크면 민영이를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있는데…….

그렇다, 앞으로 우유를 더 잘 먹어야지. 영양소도 제때에 공급해야 최대의 효과가 나는 법. 나는 6학년이 된 후로 매일 빠지지 않고 우유를 마셨다.

키가 크기를 바라며, 뼈가 튼튼해 지기를 바라며…….

드디어 민영이를 다시 만나는 여름방학

“야, 너 키 얼마나 컸냐?”

“너보다 크다. 만나자마자 키싸움이나?”

“어험, 길고 짧은 건 대박야 아는 법, 엄마, 우리 키좀 대화 주세요.”

우리는 등을 마주대고 반듯이 섰다.

“어쩜, 우리 태호가 참 많이도 컸네. 민영이와 똑같아. 앞으로 더 크겠는걸.”

“야, 엄마 정말이세요? 성공이다. 성공. 고맙다, 우유야.”

나는 펄쩍펄쩍 뛰며 방안을 돌아다녔다. 매일 빠짐없이 우유를 먹은 보람이 있어 모르는 사이에 키가 훌쩍 자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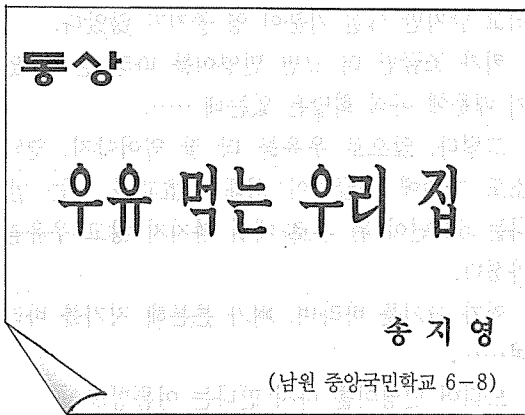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친구들이 모두 한마디씩 하였다.

“태호가 뭘 먹고 그렇게 자랐니? 참 많이 컸네.”

사실 줄대로 조희를 서보니 내 뒤의 두현이보다 내가 더 많이 자라 있었다. 가운데에 섰던 내 자리가 뒤로 몇간 물러나게 되어 이젠 큰 축에 끼게 된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완전 식품인 우유를 꾸준히 먹

어 몸 튼튼, 뼈 튼튼한 어린이가 되겠다. 신선한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어려운 가공처리의 과정에 애쓰시는 분들께 고마움을 느끼며…….



우리가족은 모두 네 식구이고, 외갓집 가족은 모두 세 식구이다. 그런데 우리는 외갓집이 바로 가까운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한 집처럼 지내서 마치 같은 가족과 같이 생활한다. 그렇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모, 나, 동생, 모두 이렇게 일곱 식구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우유를 쓰는 방법과 먹는 방법들이 가지 각색들이다. 먼저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몸이 조금 편찮으시다. 환경미화원 생활때 뇌일혈로 갑자기 쓰러지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유를 둥그스름한 밥그릇에 따라서 마신다.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안되기 때문에 술대신 우유를 먹으면 막걸리 기분이 난다시며 항상 우유를 그렇게 마시곤 하신다.

다음은 할머니.

할머니는 항상 우유를 들이키시곤, “아, 우유 맛 참 고~소 하다.”

하신다. 특별히 다른 음료도 아니고 꼭 우유만

마시면 그러신다. 내가 보아도 참 이상 야릇한 버릇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아빠는…….

아빠는 항상 200ml 우유를 한 입에 꿀꺽 꿀꺽 들이키신다. 정말 가만히 아빠를 들여다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들어 나를 놀라게 한다.

네번째는 엄마와 이모.

엄마와 이모는 목욕탕을 자주 같이 다니시곤 하는데 목욕탕에 가실때면 항상 우유를 두 개씩 가지고 가신다. 나도 따라가 보았더니 엄마와 이모는 샤워를 다 마친 후에 바가지에 우유를 붓고 그물 아니 그 우유로 세수도 하시고 몸에도 마구 뿌리셨다. 모두 다 먹어도 아까운 우유를 왜들 쓸데 없이 몸에 바르곤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다음은 바로 나.

나는 우유를 마실때면 한손을 뒤로 하고 눈을 꼭 감고 마시는 버릇이 있다. 왜 그러한 버릇을 갖게 되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눈을 감고 우유를 마시면 우유의 부드러움, 고소한 맛을 더욱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다.

동생은 우유를 무척 좋아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한 컵씩 마신다.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힘이 잘 나지 않아서 하루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정말 사람마다 우유를 쓰는 방법과 먹는 방법, 버릇이 각각 다른 것 같다.

우리 가족은 유별나게 우유를 모두 좋아해서 하루라도 냉장고 안에 우유가 없으면 난리가 날 것이다.

“여보, 우유 없나?”

“엄마, 제 우유 안 왔어요?”

“히힃, 우유가 없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